

# 16

의정부시 민락유보라어린이집

## 톡톡톡! 페트병이 건넌 놀이의 초대장



### 놀이반 소개



### 사랑둥이 꽃잎반을 소개합니다

매일매일이 사건(?)이자 축제인 곳!  
 바로 호기심 대장 7명의 멋진 남자 친구들과 반짝반짝 아이디어 뽐뽐~ 3명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들, 그리고 이 모든 하루를 함께하는 든든한 선생님 2명이 모여 있는 꽃잎반이에요! 소리 나는 건 뭐든 한 번쯤 흔들어봐야 하고, 굴러가는 건 무조건 따라가 봐야 하고, 새로운 건 꼭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꽃잎반 친구들! 서툴지만 진심 가득한 눈빛과 동글동글한 손짓으로 매일 새로운 놀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 놀이의 시작



교실 바닥에 떨어진 페트병이 데굴데굴 굴러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아이가 살금살금 뒤를 따라갔지요. 페트병이 멈추자, 멈춘 페트병을 손으로 굴리고, 발끝으로 툭 차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며 놀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굴러가던 페트병은 그저 주워야 할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새 '놀자'고 속삭이는, 꽃잎 반 교실에 도착한 작은 초대장이었습니다.

### 놀이의 과정

· '무슨 소리가 날까?'



"빈 페트병을 밟고 두드리며 '빠직', '딱딱' 소리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 교사의 '무슨 소리가 날까?' 질문에 더욱 몰입하며 반복적으로 탐색했어요. 이 과정에서 신체를 조절하고 소리의 변화를 느끼며 감각과 탐구의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짜잔~ 내가 만든 마라카스



교사의 지원

다양한 소리의 탐색: 소리나는 재료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한 교사는 수수깡, 뽕뽕이, 빨대 등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재료를 페트병 안에 넣기 시작하며 다른 재료에서 나는 소리를 비교하고 탐색하는 놀이로 확장되었지요.

하나, 두울~ 조심 조심 쓱~



집중!! 수수깡 넣는



놀이의 확장

내가 만든 마라카스를 흔들며 소리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어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노래에 맞춰 리듬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며 소리와 신체표현의 즐거움을 배워갑니다.

지역사회연계

발로 툭툭 소리도 툭툭



도하야~ 반아



위로 번쩍 준비 됐는지?



지역사회연계 & 놀이의 확장

직접 만든 마라카스를 끌고 우리 동네 산책길을 걸으며 바닥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와 진동을 감각적으로 탐색했어요. 친구와 비교하거나 이야기 나누며 자연속에서 신체조절력과 탐구심,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마라카스랑 산책중이에요



딸깍 딸깍 소리나는 길...



딸깍 딸깍 마라카스 소리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교사는 아이들이 만든 끈을 단 마라카스를 교실 천장에 달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마라카스를 올려다보며 서로 이야기 나누고, 흔들릴 때 나는 소리를 다시 들어보며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성취감과 타인의 표현을 존중하는 경험, 그리고 놀이의 결과를 감각적으로 되돌아보는 배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와!!  
저기 내 마라카스  
있다

하늘에서  
팔랑팔랑 소리나요



• 교사의 지원 및 놀이의 확장

교사가 마라카스에 끈을 달아주자, 아이들은 끈을 잡고 끌거나 발로 차며 신체를 다양하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소리의 변화, 신체 조절, 자기 표현,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 ‘굴리며 들여다 보며’

음~  
맛있다

꿀꺽~ 꿀꺽!  
시원해요



빈 페트병을 입에 대고 “음~ 맛있어!” 하며 마시는 시늉을 보였어요. 아이의 모습을 통해 상상 놀이의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 교사의 지원

아이의 상상을 더 풍부하게 확장해주기 위해 다양한 색깔 물을 넣은 페트병을 제공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 색의 차이를 눈으로 보고 비교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딸기주스야~ 빨간색!”, “노란 건 바나나”라고 말하며, 색깔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물이나 경험을 연결해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색깔의 이름을 인식하고, 구분하며, 언어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  
똑같네

노랑은 바나나  
주황은 오렌지



• 놀이의 확장

교사는 아이의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얼음블럭과 컵, 페트병 가방, 테이블을 준비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얼음을 컵에 담아 “시원해요~”하며 마시는 흉내를 내고, 페트병 가방에 주스를 담아 친구들에게 건네기도 하며 친구들과 마주 앉아 주스를 나누고 주문을 주고 받는 카페놀이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차가운 감각을 느끼고, 색깔을 탐색하고, 말로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 역할을 나누며 협력하는 등 놀이 속에서 주도적인 배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  
진짜 카페 같아!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얼음도  
넣어볼까?

페트병  
가방 안에 쪽~



데굴 데굴~  
굴러볼까?



어?  
안에 뭐가 있지?



페트병을 굴리며 놀던 중,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물풍선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눈을 가까이 가져가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 교사의 지원 및 놀이의 확장

영아들의 시선과 관심이 머무는 방향을 따라, 교사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페트병을 연결하여 벽면에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공을 위쪽에 넣고 굴러가는 모습을 관찰하며 예측과 탐색을 반복하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나도~”, “공 나왔어요!”하며 소통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다양한 재료를 넣어보며 무게와 형태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를 비교하고 탐색하는 배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로 넣으면



공이 숨~



굴러간다!  
재밋다!



뽕뽕!!  
내려간다



내가 만든  
자동차야~



예뻐게  
붙여야지



• 교사의 지원 및 놀이의 확장

굴러가는 페트병에 흥미를 보이던 아이의 모습을 관찰한 교사는 바퀴를 붙인 페트병 자동차를 제공해주었고, 아이들은 자동차를 굴리며 “부릉부릉~”소리를 내고, 경사로 위에서 굴리며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스티커를 붙여 나만의 자동차를 꾸미는 활동으로 확장되며 아이들은 색과 모양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하며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기르게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움직임을 관찰하고 예측하며 자연탐구, 자동차를 잡고 굴리며 소근육조절, 꾸미는 과정을 통해 자기 표현과 창의성 발달, 친구와 소통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였습니다.

• ‘자동차를 타고 싶은 마음’

타고 싶어요



뽕뽕~  
나도 타보고 싶어



친구가 작은 페트병 자동차 위에 올라타고 노는 모습을 바라보던 아이가 몸을 숙이며 따라 앉아보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도 타고 싶어!”하는 표현과 몸짓 속에서 자동차가 단순한 물건이 아닌 탐승하고 움직이는 ‘진짜 탈 것’으로 상상하며 놀이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 교사의 지원

영아들이 페트병 자동차를 타고 싶어하는 모습에 주목한 교사는 튼튼한 페트병을 활용해 실제로 앞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사가 끈을 잡고 직접 자동차를 끌어주며 놀이가 시작되었고, 이후 아이들은 점차 스스로 끌어보고 싶어하는 욕구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혼자 끌기 어려워지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이들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함께 자동차를 움직이는 협동놀이를 확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신체를 활용해 힘의 조절과 균형을 경험하고, “끌어줘~”, “내가 도와줄게”하며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표현하며 친구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배워갔습니다.

• ‘여름엔 페트병 분수 놀이’

손으로 만지면

짜잔! 이걸 내가 만든 분수예요



여기에서 물이 나와요

여름엔 역시 물놀이가 최고예요!



• 교사의 지원

무더운 여름, 물놀이에 대한 흥미를 반영하여 시원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뚫어 물이 분수처럼 흐르도록 제작한 페트병, 영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의자, 다양한 물놀이 용품 등과 감각적 탐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영아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따라보고, 손에 흘려보며 시원한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페트병 구멍을 통해 흐르는 물을 보며 “물이 나와요!”하고 말하거나 물을 머리 위로 올려 흘리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즐기며 반복 탐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아들은 자연스럽게 물의 흐름, 속도, 감각, 언어표현을 경험하며 탐색능력과 감각조절력, 상호작용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다양한 크기와 재질의 페트병을 충분히 제공하여 자유로운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리 탐색을 위해 수수깡, 뽕뽕이, 클립, 빨대 등 다양한 재료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 페트병을 이어 붙이거나 경사 구조를 만들어 굴리고 떨어 뜨리는 놀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 직접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대형 페트병 자동차를 제작하여 신체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끈, 바퀴, 색테이프, 스티커 등 놀이 확장을 위한 꾸미기 재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 인적 자원

- 영아의 흥미와 시도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놀이의 흐름을 존중하였습니다.
- “어떤 소리가 나?”, “다르게 해볼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탐색과 표현을 유도하였습니다.
- 영아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마라카스, 자동차, 산책 놀이 등으로 연결하였습니다.
- 친구들과 함께 끌고 다니며 즐기는 협동 놀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 영아의 새로운 시도에 따뜻한 반응과 격려로 자신감과 놀이의 즐거움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참여 소감

놀이의 변화

컨설팅 전

- 교사가 놀이 주제를 먼저 정하고, 필요한 재료와 활동을 준비한 뒤 아이들에게 제공함.
- 정해진 순서와 결과를 기대하며 계획된 방식의 놀이로 이끌고자 함.
- 아이들이 놀이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거나, 활동의 방향이 바뀌면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음.
- '어떻게 놀게 할까'를 고민하며 교사의 주도성이 높았던 시기.

컨설팅 후

- 아이의 행동, 시선, 말에 주목하며 놀이가 시작 되는 순간을 발견함.
- 아이의 관심에서 시작된 놀이를 연결하고 확장 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감.
- 놀이가 예상과 달라져도, 아이의 주도성을 존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김.
- 놀이 속에서 아이의 배움과 성장을 믿고 지켜 보는 교사로 변화함.

교사의 변화

- 정해진 활동을 제공하고, 아이가 잘 따를 때 놀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함.
- 놀이를 계획하고 주도하는 중심 역할.
- 완성된 재료와 활동을 미리 정해두고 준비함.
- 활동을 따라오는 아이를 '잘 참여하는 아이'로 바라봄.
- 놀이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하거나 조급함.

- 아이의 작은 행동과 관심에서 놀이가 시작됨을 인식하게 됨.
- 놀이를 관찰하고 연결하며 기다리는 동반자로 변화됨.
- 아이의 반응과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준비하고 반응함.
- 각자의 놀이를 만들어가는 아이를 존중하며 배움의 주체로 인식함.
- 예측할 수 없는 놀이의 흐름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생김.

영유아의 변화

- 교사가 제시한 놀이를 짧게 경험하고 이탈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주어진 재료를 사용해 정해진 방법만으로 놀이함.
- 놀이보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더 의존함.
- 말보다는 행동 중심의 반응이 주를 이룸.

- 스스로 시작한 놀이에 몰입하며 오랫동안 탐색함.
- 다양한 방법으로 재료를 탐색하고, 자신만의 놀이로 확장함.
- 또래와 함께 나누고 협력하며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 놀이 속에서 말로 표현하거나 간단한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 표현.

# 17

## 파주시 시립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

### 함께 만드는 우리만의 재활용 놀이터



놀이반 소개

우리 열매 반 친구들은 만 4·5세가 함께하는 혼합 연령반이자 장애 통합반으로,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동생을 챙기고, 동생은 형님의 경험을 이어받으며 차별 없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 유아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아이들은 이를 통해 서로에게 배우고 또 다른 경험을 확장하며 배움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놀이의 시작

교실 한쪽에 무심히 쌓여있던 종이 상자가 아이들의 눈길을 끌며 놀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블록을 대신해 상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도미노처럼 즐기더니, 곧 가위와 테이프를 집어 들어 상자를 자르고 이어 붙이며 새로운 놀잇감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놀이는 점차 확장되었고, 아이들은 재활용품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또 다른 놀이의 매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재활용품 놀잇감을 만들어 내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호기심과 흥미, 탐구심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며 놀이의 세계를 넓혀 갔습니다.



놀이의 과정

1. 종이 상자로 놀아요

겹겹이 쌓여있던 종이 상자를 하나, 둘 교실 중앙으로 들고 이동하던 유아들은 상자를 이리저리 뒤집어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자 하나로 공간을 구성하던 유아들이 상자를 연결하고 다른 놀잇감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 숫자 쓰기를 좋아하던 장애 통합반 친구가 종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 "1,2,3,4,5"라고 크게 말을 하며 숫자를 쓰고 있었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유아도 종이 상자를 길게 펼쳐 길을 만들어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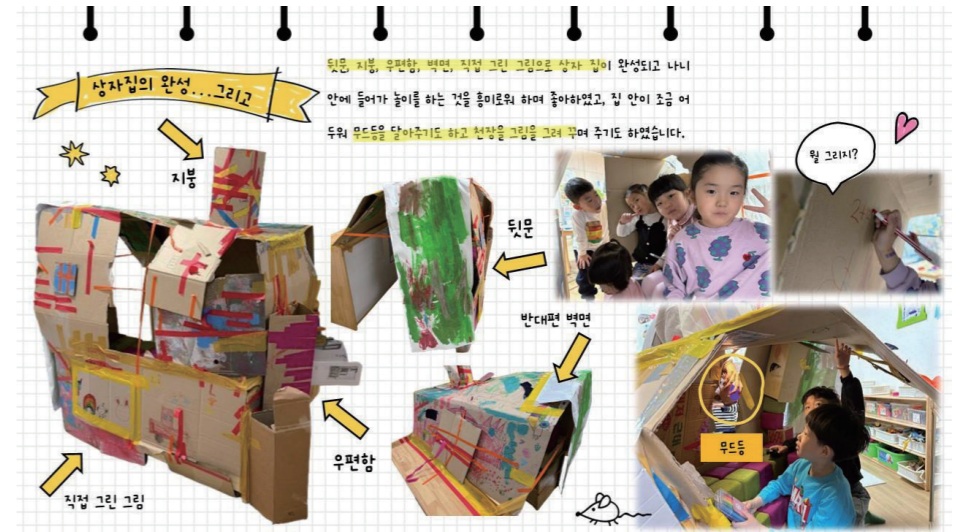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종이 상자의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고 싶은 유아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커다란 집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집의 구조에 대해 묻는 유아들과 함께 창문, 지붕, 벽, 굴뚝을 형상화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놀이 과정 중 종이 상자 집이 무너지거나 유아들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스스로 해 보고자 하는 시도와 과정 속에서의 경험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었고 전에 놀이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상자를 재활용하여 지붕을 만들고 작은 상자들과 테이프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과연 어떤 집이 만들어질까요?



뒷문 지붕, 우편함, 벽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상자 집이 완성되고 나니 안에 들어가 놀이를 하는 것을 흥미로워 하며 좋아하였고, 집 안이 조금 어두워 무드등을 달아주기도 하고 천장을 그림을 그려 꾸며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놀이 이어 나가면서 집이 약하여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며 결국 종이 무너져 버려 함께 집을 보수하여 튼튼하게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공간을 옮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집 안에 기둥을 세워주었고, 유아들이 집을 고치면서 새롭게 지붕도 꾸며주었습니다.



### 2. 휴지심 비행기, 출발합니다.

아이들은 버려진 휴지심을 하나씩 손에 들고 이리저리 굴러 보거나 망원경처럼 눈에 대어 보는 등 자유롭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유아가 휴지심을 날개처럼 펴서 “비행기처럼 날아간다!”라고 말하며 날리는 동작을 했고, 이를 본 다른 친구들이 함께 따라 하면서 놀이가 본격적으로 ‘비행기 만들기’로 확장되었습니다.

### 놀이의 시작

종이, 휴지심

사용고남은천

병뚜껑

빨대, 젓가락

플라스틱컵

미술 영역에 있는 다양한 재활용품 재료를 활용해 만들기를 하던 중, "이걸로 비행기 만들었다!"라고 하며 휴지심으로 비행기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 열매반은 비행기 만들기 중!

하늘로 날아가는 로켓을 만들어야!

"내 비행기는 로켓도 될 수 있어, "나는 바다 위를 나는 비행기야!" 라고 하며 상상의 이야기가 펼쳐졌고, 작은 휴지심 하나에서 시작된 놀이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한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겉과 다른 휴지심을 각자 고르고 상상 속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긴 휴지심은 대형 여객기, 짧은 휴지심은 귀여운 개인 비행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박스와 병뚜껑 그리고 천 이 바퀴와 날개로 변신!! 스티커로 무늬를 더하니 자신만의 특별한 비행기가 완성되었습니다.

### 휴지심 비행기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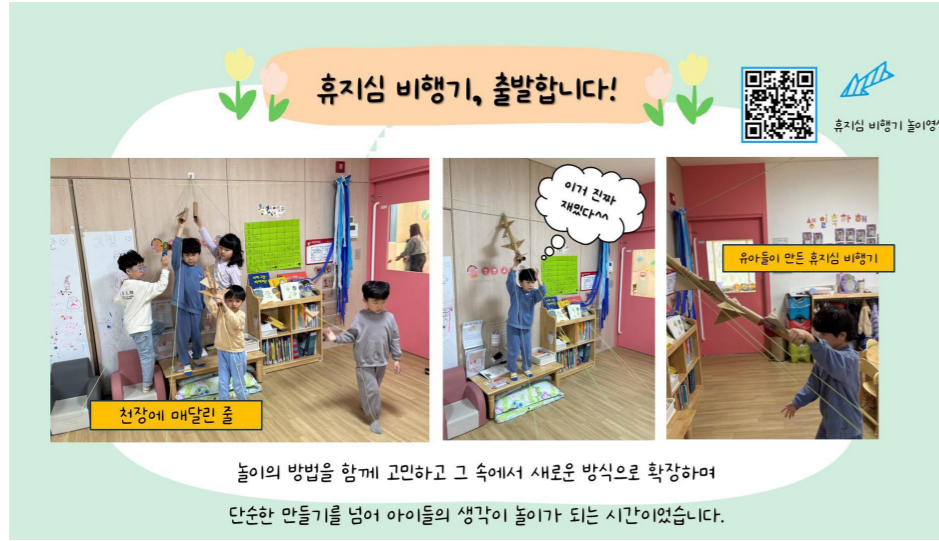
그렇게 완성된 비행기들이 하나 둘 쌓이자, “어디에 둘까?” 하고 고민하여 전시 공간을 마련하였고 각자의 비행기를 놓아 멋지게 전시하였다. 아이들은 서로의 비행기를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전시된 자신의 작품을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어보이기도 하였습니다.

### 휴지심 비행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날려!!!”

“숨~ 비행기 출발”

“휴지심 비행기를 어떻게 날릴 수 있을까?” 를 열매반 친구들과 고민을 돌려보며 종이비행기처럼 던지는 건 다른 친구들이 다칠 것 같고 손으로 들고 다니며 놀이기엔 짧아서 계속 날리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벽과 교실 바닥을 줄로 연결해 하늘길을 만들어주니 어느새 열매반 교실은 비행기장과 하늘길이 펼쳐졌고 자신의 비행기를 매달아 날리며 놀이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휴지심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상상은 교실을 가로지르는 하늘 위로 멋지게 날아올랐습니다.



놀이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하여 단순한 만들기를 넘어 아이들의 생각이 놀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2. 우유갑의 변신

휴지심 비행기 놀이를 하며 유아들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들어 보는 것보다 직접 비행기를 던지듯 날리고, 신체를 활발히 움직이며 노는 데 더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간식을 먹고 깨끗이 씻어 놓은 우유갑을 본 한 유아가 그것을 던지거나 발로 차 굴리며 놀이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교사와 함께 우유갑 골대를 만들어 신체 놀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우유갑을 활용한 다양한 신체 놀이 방법을 찾아내었고, 놀이가 제기차기·우유갑 탑 쓰러뜨리기·투포환 놀이로 확장되며 더욱 다채롭게 전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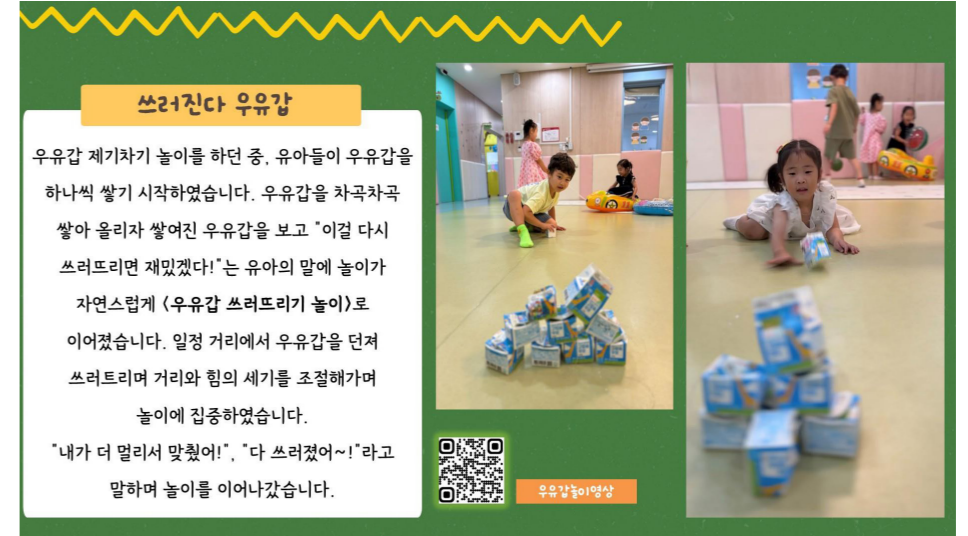
재활용품 놀이를 이어가던 중, 교실에 모인 우유갑이 많아지자 아이들의 흥미를 살려 칠판에 비닐봉투를 붙여 골인 지점을 만들어 그 앞에 색테이프를 붙여 놀이 시작 지점을 표시해 주었어.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점차 자신의 생각을 더해 다른 색 테이프로 거리를 조절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골인을 시도하며 놀이를 확장해 나갔어. 친구들과 순서를 정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등 규칙도 만들어가며 우유갑을 활용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거리를 계속 늘려가며 놀이를 이어나가 더 넓은 공간인 유희실로 공간을 옮겨 골대를 활용하여 놀이를 하였고 놀이의 규칙과 방식, 거리 등을 조절하며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였고 우유갑이 놀이 도구가 되고,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놀이가 확장되었습니다.



빈 우유갑에 원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며 각자의 제기를 완성하였고, 이후 우유갑에 구멍을 뚫고 낚시줄을 연결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완성된 놀이감으로 "제기차기 놀이를 해보자"라고 제안하자 유아들은 발등으로 차 올리는 동작을 하였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는 방향, 높이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며 즐거워하였답니다.



우유갑 제기차기 놀이를 하던 중, 유아들이 우유갑을 하나씩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유갑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자 쌓여진 우유갑을 보고 "이걸 다시 쓰러뜨리면 재밌겠다!"는 유아의 말에 놀이가 자연스럽게 <우유갑 쓰러뜨리기 놀이>로 이어졌습니다. 일정 거리에서 우유갑을 던져 쓰러트리며 거리와 힘의 세기를 조절해가며 놀이에 집중하였습니다. "내가 더 멀리서 맞췄어!", "다 쓰러졌어~!"라고 말하며 놀이를 이어나갔습니다.

실내에서 우유갑 놀이를 이어가던 교사와 유아들은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넓은 야외 공간으로 나가 우유갑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신체 놀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우유갑이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유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날아가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유아가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넣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였고, 아이들은 운동장 주변을 함께 탐색하며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주워 우유갑에 채워 넣었습니다. 교사는 벌어진 부분을 종이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여 다시 던지기 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무게가 더해진 우유갑은 이전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고, 이를 경험한 유아들은 큰 자신감을 얻어 더 멀리 던져 보려는 도전을 즐겼습니다. 또한 무게가 늘어난 우유갑은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며, 놀이 속에서 새로운 과학적 원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지원

- ① 재료 제공
  - 종이 상자, 휴지심, 간식 후 씻은 우유갑 등 재활용품 제공
  - 놀이 확장을 돕는 종이테이프, 가위, 색종이, 마커 등 보조 재료 준비
- ② 놀이 공간 마련
  - 교실 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
  - 확장된 신체 놀이를 위해 운동장, 야외 공간으로 이동 지원
  - 안전장치 마련
  - 무너질 수 있는 상자 구조물 연결 시 보조 장치 지원
  - 벌어진 우유갑을 종이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여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

#### 인적 지원

- ① 조력자 역할
  - 유아의 제안과 호기심을 존중하며 질문으로 사고 확장 유도
  -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도와 탐색을 기다려 주고 격려
- ② 문제 해결 지원
  - 종이 상자 집 무너짐이나 유아 간 다툼 상황에서 자율적 해결을 지지하고 필요시 중재
  - 놀이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실천 방법 제안
- ③ 놀이 확장 지원
  - 유아가 제안한 새로운 방법(돌멩이 넣기, 제기차기, 탑 쓰러뜨리기 등)을 긍정적으로 수용
  - 놀이가 신체·과학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화와 관찰로 돕기
- ④ 안전 관리
  - 신체 놀이 시 충돌·부상 위험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 놀이 규칙을 간단히 안내하며 질서를 유지하도록 지원

참여 소감

놀이의 변화

컨설팅 전

컨설팅 이전의 재활용품 놀이는 주로 교사가 계획하고 제공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아들에게 종이 상자, 휴지심, 우유갑 등 재활용품은 단순히 탐색하거나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으며, 놀이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아들은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교사의 안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놀이가 중단되거나 한정된 방식으로만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변화

컨설팅 전 교사는 놀이 계획과 지도를 통하여 놀이를 통제하거나 주도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또한 놀이의 진행과 안전 확보에 치중하면서, 유아가 놀이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탐색하는 경험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놀이를 통한 유아 발달의 경험이 학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영유아의 변화

컨설팅 이전의 유아들은 주로 교사의 안내와 계획에 의존하며 수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재료의 지원이 있었지만 스스로 놀이로 확장하는 부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문제 상황 발생 시 해결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또래와 협력하며 놀이를 확장하는 경험도 제한적이어서 신체적 탐색과 창의적 시도 역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컨설팅 후

컨설팅 이후, 재활용품 놀이는 유아가 스스로 계획하고 확장할 수 있는 주도적 놀이로 발전했습니다. 종이 상자를 활용한 집과 구조물 만들기, 휴지심 비행기 날리기, 우유갑 던지기와 발차기, 투포환 놀이 등은 유아의 상상력과 신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놀이를 스스로 만들고 과정을 경험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후 교사는 유아의 시도와 탐색을 존중하며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이 전환되었습니다. 유아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놀이 확장을 위한 재료 제공과 환경 조성을 적시에 지원하며, 놀이 속에서 유아가 스스로 학습과 발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찰과 격려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놀이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발달적 학습의 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이후 유아들은 놀이의 주체로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재료를 변형하며 새로운 놀이를 창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유갑 던지기, 돌멩이와 나뭇가지 넣기, 탐 썩기, 투포환 놀이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과학적 원리와 문제 해결 경험을 자연스럽게 체험하였고, 실패 경험도 도전과 학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또래와의 협력과 의사소통, 규칙 준수 경험이 증가하며 자신감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 18 파주시 시립한울어린이집 우리 함께 반짝이는 빛놀이



놀이반 소개

고운예쁜반은 남아 2명, 여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즐깁니다. 영아들은 다양한 놀이 자료에 큰 관심을 보이며, 손끝으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살펴보는 등 여러 감각을 통해 세상을 탐색합니다. 이러한 영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는 영아들의 놀이 방향을 충분히 관찰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놀이 자료와 매체를 제공합니다. 교실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 아침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며, 고운예쁜반 친구들의 기분은 언제나 맑고 밝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교실은 영아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놀이에 대한 흥미를 더욱 증진시킵니다. 교사는 이러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계획하고 제공하였습니다.

놀이의 시작

고운예쁜반 교실의 두 면이 통창으로 이루어져 오전시간동안 자연의 햇빛이 교실을 비춥니다. 아침이면 따사로운 햇빛이 바닥에 펼쳐지고, 그 위에 영아들의 움직임이 그림자로 드리워지는 장면은 놀이 시작의 알림이 됩니다. 영아들은 손이나 발로 그림자를 만지고자 하지만, 잡거나 밟을 수 없다는 사실을 놀이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영아들의 자연스러운 호미나 호기심을 더 자극하기 위해, 교사는 창가에 알록달록한 셸로판지 모빌을 설치했습니다. 시각적 자극을 넘어, 빛의 반사와 굴절을 통해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모빌 설치 후 처음에는 영아들이 그 변화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서두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한 영아가 바닥에 떨어진 알록달록한 빛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영아는 손가락과 발로 그림자를 툭툭 건드리며 탐색하는 행동을 보였고, 이 순간은 놀이와 인지의 통합적 경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순간 영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아름다운 자연의 빛을 만나면 어떻게 놀이할까? 나의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빛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놀이의 과정

1. 바닥에 펼쳐진 자연의 빛 탐색

교사는 셀로판지 모빌을 창가에 설치하여 햇빛과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닥에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빛이 펼쳐졌고, 영아들은 그 빛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거나 발로 밟아보려 시도하며 '그림자는 잡을 수 없다'는 빛의 특별한 성질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광만으로는 영아들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교사는 다양한 색상의 물병과 색깔 블럭을 교실에 비치하고, 영아들이 직접 빛을 이동시키며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영아들은 이후 물병을 들어 위치를 조정하며 빛과 색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자연의 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 교사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2. 바깥에서 만나는 자연의 빛

고운예뽀반에서는 다양한 색의 셀로판지를 제공하여 영아들과 함께 빛놀이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아들은 셀로판지를 직접 찢어 투명 시트지에 붙이며 색깔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사가 알려준 다양한 색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셀로판지를 눈에 가까이 대어 보거나 알록달록하게 변하는 주변을 살펴봄에 색의 이름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셀로판지를 붙인 시트지를 나비 모양으로 만든 후, 바깥으로 나가 셀로판지 나비와 자연의 빛이 만나 바닥에 비치는 알록달록한 나비 그림자를 탐색하였습니다. 영아들은 색깔이 생긴 빛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지며, 자연의 빛과 색의 변화를 즐겁게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영아들과 함께 커다란 나비를 들고 비춰진 빛을 살펴봄에 색 그림자를 관찰하였습니다. 또래와 함께 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으며, 직접 만든 나비 놀이감을 이용해 자유롭게 흔들어 보며 좀 더 주도적으로 자연의 빛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자연의 빛을 만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교사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공간에서 만나는 빛은 어떤 즐거움을 줄까? 무서워할까? 아이들 스스로 놀이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두운 공간에서의 빛놀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3. 어두운 공간에서의 빛, 내가 만드는 빛

자연광의 변화로 인해 실내에서 지속적인 빛놀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는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여 영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빛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교실의 조명을 끄고, 손전등을 제공하여 어두운 공간에서의 빛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아들이 손전등을 입으로 탐색하거나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얼굴에 빛을 비추는 등의 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탐색은 영아들이 새로운 도구와 환경을 이해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아들은 손전등을 자유롭게 다루며 벽, 천장, 친구, 자신의 신체 등에 빛을 비추는 등 주도적인 탐색을 시작하였습니다. 빛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며, 빛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벽에 비춰진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한 영아는 "이건 누구지?"라며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몸을 움직이며 따라 움직이는 자신의 그림자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등 자기 인식의 발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사는 영아들의 탐색을 지지하며, 손전등의 사용법을 함께 익히고, 다양한 빛의 방향과 크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아들이 자기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였습니다.



#### 4. 고운예쁜반의 빛놀이 공간

영아들의 지속적인 흥미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는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여 빛놀이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아들이 빛놀이를 하고자 관심을 보일 때 교실의 조명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려 어두운 공간을 만들었으며, 바닥과 벽면에는 거울지를 충분히 부착하여 반사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은박 파티커튼과 은박지 풍선으로 공간을 꾸며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였습니다. 빛놀이의 다양성을 위해 불빛 팝튜브, 반짝이 공, 닿는 면에 따라 색이 변하는 라이트 큐브 블록, LED 막대, 빛블럭 등 다양한 빛놀이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빛놀이 자료들은 영아들이 빛의 특성을 탐색하고, 색의 변화를 경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아들은 빛놀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블록을 높이 쌓고 무너지며 변하는 색을 탐색하거나, 다양한 빛의 반사와 변화를 관찰하며 주도적인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영아들은 빛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고,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영아들은 빛놀이에 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빛의 변화를 탐색하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 5. 색을 입은 라이트 테이블

빛놀이 매체에 흥미도가 점점 떨어져갈 즈음, 빛에 대한 흥미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는 라이트 테이블을 제공하여 새로운 빛놀이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영아들이 빛의 특성을 탐색하고, 자기 자신과 또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이트 테이블 위에는 고운예쁜반 친구들의 그림자와 얼굴 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아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찾아보거나 친구의 얼굴을 가리키며, 자기 자신과 또래를 인식하는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기 인식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영아들은 라이트 테이블 위에서 친구의 얼굴을 살펴보고 친구의 이름을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이트 테이블을 활용한 빛놀이 활동은 영아들의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자기 인식과 또래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6. 빛놀이 속 배움

영아들은 자연의 빛, 어두운 공간 속 인공 빛, 그리고 그림자를 경험하며 다채로운 빛놀이에 몰입했습니다. 손전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빛의 크기와 방향이 변화함을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했으며,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그림자를 인식하는 순간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탐색은 영아에게 자기 인식과 자기주도적 참여의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은은하고 반짝이는 조명과 다양한 놀이 매체들은 감각적 매력과 함께, 미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도왔습니다. 또한 반짝이며 신비한 분위기의 빛 놀이 공간에서 빛과 색으로 상상하고 놀이하며 심미적인 아름다움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손전등
- 셸로판지
- 거울지
- 아스테이트지
- 나무 아치
- 반짝이 공
- 빛 막대
- 은박풍선
- 파티커튼
- 빛 블록
- 색 물병
- 라이트테이블
- 영아 사진
- 불빛 팝 튜브
- 라이트 큐브 블록
- 색 돋보기
- 파티 커튼
- 오로라 커튼
- 빔 프로젝터
- 투명 시트지

### 인적 자원

- 교사는 주어진 교실 환경의 장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떤 놀이로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빛이 잘 드는 교실의 장점을 빛놀이로 지원하였습니다.
- 교사는 영아들이 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손전등을 다뤄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로써 아이들은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빛의 크기와 방향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 교사는 자연광과 인공 조명, 그리고 그림자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다양한 빛 환경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도록 촉진 할 수 있었습니다.
- 영아들이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그림자”를 인식하였을 때 적절한 순간에 영아의 주의를 유도하거나 질문을 던지며, 놀이를 통한 자기 인식과 참여를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 은은하고 반짝이는 조명 및 다양한 빛 놀이 매체의 제공을 통해 교사는 감각뿐 아니라 감정적 몰입과 미적 즐거움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흥미와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 참여 소감

### 컨설팅 전

### 컨설팅 후

#### 놀이의 변화

아이들의 눈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모빌과 놀잇감이 배치되어있었다. 또한 너무 많은 양의 교구가 배치되어있어서 영아들의 놀이 집중시간이 짧고 한가지 놀이자료에 금방 흥미를 잃고 다른 놀잇감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였다.

교구장 맨 윗칸의 교구를 없애고 아이들의 흥미가 비교적 적은 교구는 정리하여 교실 환경을 점검하였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위치에 놀이자료를 배치하자 활발하게 놀이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교사의 변화

상호작용시 교사의 호응도가 낮고 아이들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며 상호작용하였고 간단한 단어나 말을 사용하였다.

좀 더 높은 톤으로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더 다양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였고 영아들의 행동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해주시니 영아들의 웅얼이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늘어남을 볼 수 있었다.

#### 영유아의 변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조용하고 정적으로 놀이하였고 자신만의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놀이자료를 잠깐씩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가 텐션을 올리고 더 많이 상호작용하자 아이들도 따라서 활발하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씩 자신만의 놀이에 집중하였다.

# 19 포천시 슬모루어린이집 공룡이 사라진 이유



## 놀이반 소개

우리 반은 남아의 비율이 높아 블록놀이와 구성놀이를 즐겨 하며, 협동하여 구조물을 만들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또한 자연 현상과 생명체에 관심이 많아 야외 탐색이나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에도 흥미를 보입니다.

## 놀이의 시작

공룡 주제 놀이를 통해 공룡의 생김새, 먹이, 서식지 등을 탐구하고 화산 폭발 실험을 경험한 유아들은 “공룡은 왜 없어졌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멸종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공룡이 사라진 이유를 탐구하는 놀이로 확장하게 되었다.

## 놀이의 과정

교사는 공룡 도감 자료와 그림책을 제공해 탐구를 돕고, 실험 도구와 얼음을 활용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점토와 발굴 도구, 자연물과 미술 재료를 제공하여 화석 발굴, 공룡알 꾸미기, 동지 만들기 등으로 놀이가 확장되도록 도왔다.

## 교사의 지원

### · 물리적 자원

교사는 블록, 자연물, 점토, 붓, 삽, 공룡 모형, 얼음 등 다양한 자료와 도구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공룡 탐구, 화석 발굴, 공룡알 꾸미기 등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 인적 자원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에 몰입하고 탐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격려하며, 역할 분담과 협력 활동을 지도하여 상호작용과 표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 참여 소감



### 컨설팅 전

공룡의 먹이와 서식지를 알아보고 도감을 만들던 초기 탐구 활동에서 시작하여, 화산 폭발 놀이를 통해 공룡 멸종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어 빙하기와 관련해 얼음 속 공룡 구출 놀이, 점토를 활용한 화석 발굴, 공룡알 꾸미기, 동지 만들기, 돌멩이 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놀이가 점차 확장되었다. 또한 공룡 역할극과 움직임 표현, 신체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제와 연결하며 놀이의 깊이와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상상력과 탐구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 컨설팅 후

컨설팅 이후, 유아들은 공룡 탐험기지에 친구들의 작품을 관찰하고 공룡 이름을 붙이는 등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였다. 바깥 놀이 시간에는 기지에 필요한 계란판, 나뭇가지, 열매 등 자연물을 주워와 꾸미며 놀이를 확장하였다. 점토에 공룡 모형을 찍어 화석을 만든 뒤, 바깥에서 보물 찾기와 공룡 특징 퀴즈 놀이를 하며 탐색의 즐거움을 느꼈다. 원장님의 지원으로 화석 발굴 놀이를 제공받아 유아들과 함께 화석을 발굴하며 탐구 활동이 깊어졌다. 빙하기 놀이에 흥미를 보이는 유아들에게 색을 넣은 얼음을 제공하고 따뜻한 물을 활용해 얼음을 녹이며 발굴 놀이를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공룡알 디자인 놀이도 자연물을 활용해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 동네’ 주제로 놀이가 확장되면서 교실 한편에 유아들의 놀이 결과물을 전시하여 공룡 박물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놀이 결과를 공유하고 관찰하며 자부심과 몰입을 높이는 경험을 하였다.

## 놀이의 변화

교사의 변화

교사는 과거에는 놀이에 직접 많이 개입하기 보다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필요한 자료와 환경을 제공하며 지원하는 데 집중하였다. 질문과 격려를 통해 유아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컨설팅 후,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를 세심히 관찰하며 필요할 때만 개입하고, 놀이 상황에 맞는 자료와 환경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집중하였다. 유아들이 친구들과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호작용을 지원하였으며, 놀이 중 나타나는 호기심과 질문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탐구와 표현 활동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공통 탐험기지, 화석 발굴, 빙하기 얼음 놀이, 공룡알 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상상력과 탐구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놀이 몰입을 촉진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는 놀이의 흐름을 관찰하고 조율하며,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확장할 수 있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유아의 변화

유아들은 놀이에 점차 몰입하며 주도적으로 탐구와 표현 활동에 참여하였다. 친구들과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나타났고, 공룡의 생김새, 서식지, 화석, 멸종 이유 등 주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깊어졌다. 또한 미술, 신체 표현, 언어 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이 확장되었으며, 특히 빙하기와 관련된 얼음 속 공룡 구출 놀이에 더욱 집중하며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컨설팅 이후, 유아들의 공통 놀이가 단순 탐구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유아들은 공통 탐험기지 구성, 화석 발굴, 빙하기 얼음 놀이, 공룡알 디자인 등 활동을 주도적으로 시도하며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놀이를 발전시켰다. 교실 한편에 공룡 박물관을 구성하여 친구들의 작품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는 등 놀이 결과를 공유하며 몰입과 관심이 높아졌다. 바깥 놀이 시간에도 계란판, 나뭇가지, 열매 등 자연물을 활용해 놀이를 확장하며, 다양한 재료와 환경 속에서 상상력과 탐구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었다.



# 20 포천시 아기별어린이집 버려진게 아니야! 지구를 살리는 놀이야!



## 놀이반 소개

0세 반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감각적 탐색을 통해 놀이를 확장하는 것을 즐긴다. 특히 손으로 만지고, 흔들고, 넣고 꺼내는 등의 조작 놀이에 흥미를 보이며, 교사의 언어적 격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편이다. 놀이를 통해 스스로의 신체를 인식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시기이다.

## 놀이의 시작

교실 주변과 놀이터에서 영아들이 버려진 상자나 병뚜껑, 종이조각 등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관심을 계기로 교사들은 재활용품 놀이 자료로 제공하며 환경과 놀이를 연결시켰다. “버려지는 물건도 다시 쓰면 재밌는 놀이가 될 수 있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살리고 신나게 놀이할 수 있는 것을 영아들과 놀이 하기로 했다.

## 놀이의 과정

### 1. 박스로 까꿍 놀이를 해요

큰 택배 박스와 작은 상자를 여러 개 제공하자,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다가 “까꿍!” 하며 얼굴을 내밀었다. 박스 사이를 기어가며 친구를 찾고, 상자 위에 올라서며 균형을 잡는 등 신체 탐색 놀이로 확장되었다. 교사는 상자에 문을 만들어주거나 터널처럼 이어주며 공간을 확장해주었다.

→ 영아의 신체 인식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공간 개념이 발달 됨.



## 2. 페트병 빗물 저금통 만들기

투명한 페트병에 스티커로 꾸미고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 어린이집 데크에 빗물을 받았다. 비 오는 날, 아이들과 함께 저금통에 담긴 빗물을 보며 “물이 차요!”를 경험했고, 빗물을 모아 공원의 꽃밭에 물을 주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활동을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영아들이 체험 할 수 있었다. → 과학적 탐구력, 환경 감수성, 생명 존중 의식이 발달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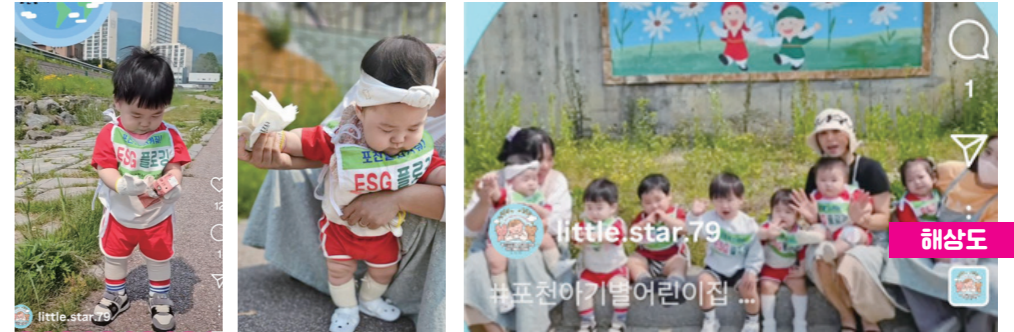
## 3. 신문지를 이용한 신체 활동 놀이

신문지를 찢고, 뭉치고, 던지고, 하늘에 날리며 자유롭게 움직였다. 교사는 음악을 틀어주며 “신문지 비가 내려요!”라고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신문지 조각을 하늘로 던지며 춤추듯 즐겼다. 신문지 공을 만들어 굴리고, 던지며 친구와 협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 대근육 조절 능력, 감각 탐색, 표현력 향상.



## 4. 플로깅 놀이

재활용품 놀이를 환경보호 활동으로 연계하여 진행 하였다. 이미 빗물 저금통 활동을 부모님들과 연계 하여 진행하였으며 플로깅은 지역사회 연계로 학부모와 함께 진행하였다. 어린이집 주면 산책로에서 발견한 쓰레기들을 교사는 집게와 봉투를 들고 함께 “깨끗한 세상 만들기 놀이”를 시작했다. 어린이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주운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으며 “여긴 플라스틱!”, “이건 종이야!” 하며 환경보호 개념을 배웠다. 학부모와 함께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분리수거 활동이 이어 지도록 하였다.



###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박스 놀이  
다양한 크기의 택배박스와 종이상자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들어가거나 기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고정 함. 터널과 문을 만들어 공간 확장 및 신체 탐색 기회 제공.
- 페트병 놀이  
가정에서 가지고 온 페트병으로 빗물 저금통을 만들고 어린이집 데크에 빗물을 저금하며 관찰 놀이를 함.
- 신문지 놀이  
넉넉한 양의 신문지를 마련해 찢기·뭉치기·던지기 등의 대근육 활동을 진행.
- 플로깅 놀이  
집게, 장갑, 분리수거용 비닐 봉투, 재활용품 분류함 등을 준비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

#### 인적 자원

- 담임교사  
전체 놀이 기획, 재활용품을 놀이로 연결 시키며 놀이의 흐름을 관찰, 기록
- 보조교사  
놀이 안전을 지원하고 놀이 공간 재구성과 재료 보충을 도움.
- 원 장  
재활용품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교육 방향을 제시. 교사 간 회의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확장하도록 지도.
- 학부모  
플로깅에 함께 참여하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준비, 가정에서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이어지도록 연계함.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어린이집 내의 정해진 놀잇감 위주로 짧은 시간의 놀이가 이루어졌음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이가 일상화되며 놀이 시간이 길어지고 자발적 탐색이 확장됨

교사의 변화

놀이 자원을 직접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둠

아이들의 흥미에서 출발해 환경과 연결되는 놀이를 계획하며 교육적 의미를 발견함

영유아의 변화

사물에 대한 탐색이 단순함

버려진 사물에 대한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표현과 탐색이 활발해짐

결론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이는 아이들의 창의적 탐색과 환경 감수성을 동시에 길러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버려지는 물건이 다시 놀이가 되고, 놀이가 다시 자연을 지키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아기별어린이집 아이들은 오늘도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작은 손”이 되었다.



MEMO



Lined area for writing a memo.